



VIDO Monthly Report
Feb.

2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VIDO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2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Media Art Trend

- 2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 Bondee (본디)
-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작용 : 인터랙티브 아트

■ 'VIDO's News'

- VIDO, 작가에게 재생수익 첫 환원 완료

■ 'VIDO's Artist'

'Friend Wilson'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2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Bondee(본디) - 적당한 폐쇄성의 메타버스 소통 플랫폼 2030 Back to the 싸이월드

작년 10월에 출시하여 3개월 만에 앱스토어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메신저 앱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소통 플랫폼인 **Bondee(본디)**입니다. Bondee(본디)는 IT 스타트업 그룹 메타드림(Metadream)에서 제작하여 적당한 폐쇄성과 다양한 모션, 코디, 인테리어로 간편하게 상태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저들은 캐릭터를 이용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작은방에 나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Bondee(본디)는 파도타기 같은 플로팅 기능, 미니홈피 같은 스페이스 등으로 '2030세대의 새로운 싸이월드다!'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했지만 Bondee(본디) 코리아는 입장문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받으며 관련 이슈를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싸이월드 세대'에 추억을 불러일으킨 Bondee(본디)는 지속적으로 소통 플랫폼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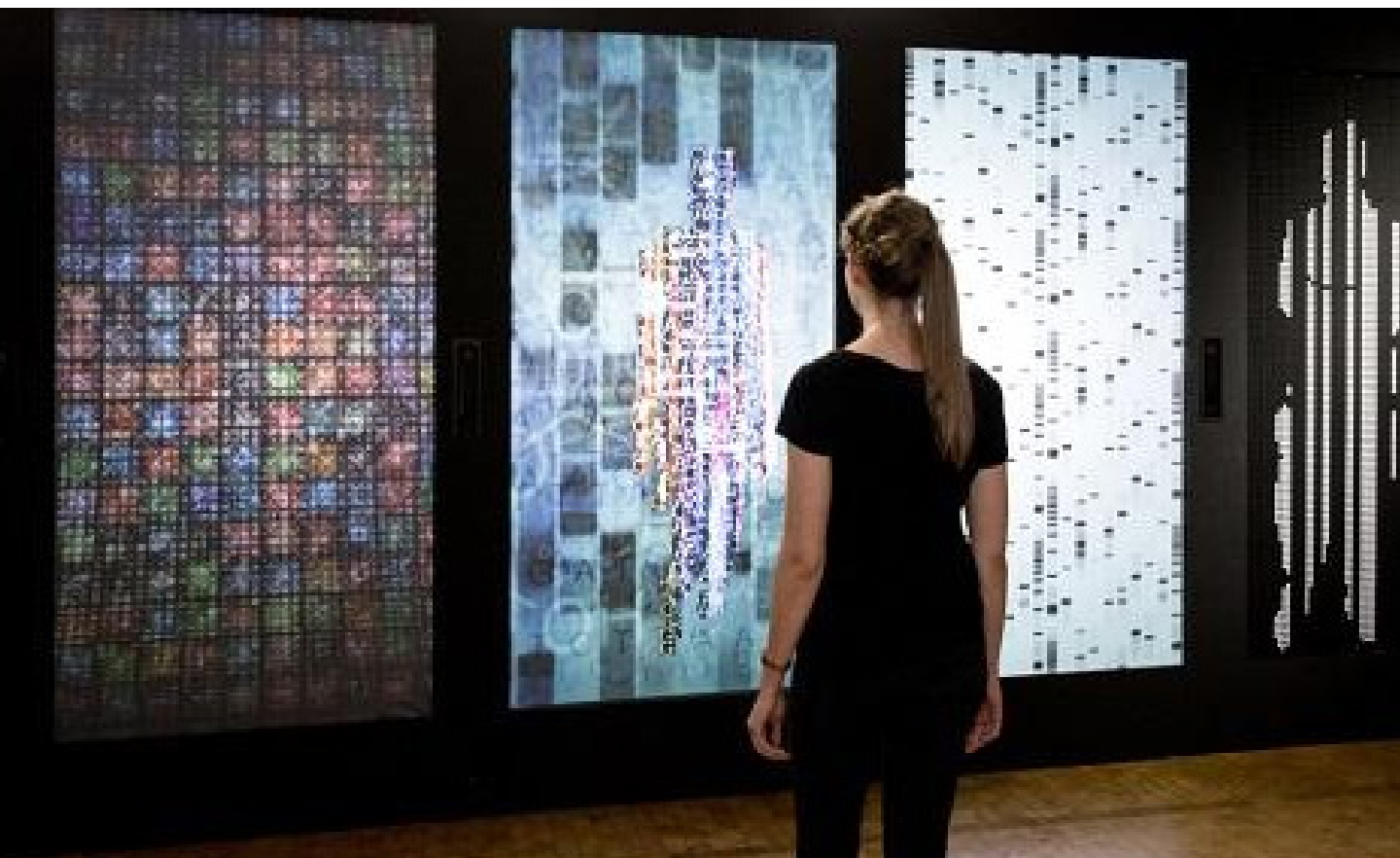
원문 보기

작품과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

전시 관람 형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를 사이에 두고 감상하던 작품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예술에 기술 매체가 결합되어 관람객이 참여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품과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아트 작품을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라고 합니다. 현재 인터랙티브 전시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 국립현대미술관 ·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센터(ZKM) 교류전 《페터 바이벨: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

작가 페터 바이벨은 1960년대부터 예술가로서 작품을 제작해 왔고 큐레이터, 이론가로도 활동하며 자신의 작품에 인터랙티브 요소를 추가하며 이번 전시에서도 "예술은 작가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행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이 하나의 행위임을 보여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에서 페터 바이벨과 베른트 린터만이 함께 작업한 <YOU:R:CODE>, 2017와 비엔나시립공원에서 시민을 놀라게 했다던 <신음하는 돌, 비인간의 시>, 1969 등 인터랙티브 아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페터 바이벨 · 베른트 린터만, <YOU:R:CODE>, 2017, ZKM | 컬렉션

©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 센터 (ZKM) 사진: Felix, 국립현대미술관



페터 바이벨, <신음하는 돌, 비인간의 시>, 1969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2) 아라아트센터 기획 전시

미구엘 슈발리에,《디지털 뷰티 2023》

미구엘 슈발리에 작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예술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작가는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도 많은 미학적인 부분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들어가서 관람객들이 같이 움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기하학적 모델링 만들어진 그물망들이 관람객의 움직임으로 변화하는 <그물망 복합체>, 2023과 관람객의 얼굴과 동작을 인식하는 <기계의 눈>, 2023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구엘 슈발리에, <그물망 복합체>, 2023

출처: 아라아트센터 인스타그램



미구엘 슈발리에, <기계의 눈>, 2023

출처: 아라아트센터 인스타그램

더 알아보기 1

더 알아보기 2

VIDO's News

VIDO's News

VIDO, 작가에게 미디어아트 재생 수익 첫 환원

지난 2월 20일 VIDO에서 발생한 미디어아트 재생 수익을 작가들에게 처음으로 환원했습니다. VIDO는 이번 수익 분배로 시작하여 콜렉터들의 다양한 미디어 캔버스를 활발히 수집 중에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작품에 대한 재생 수익 환원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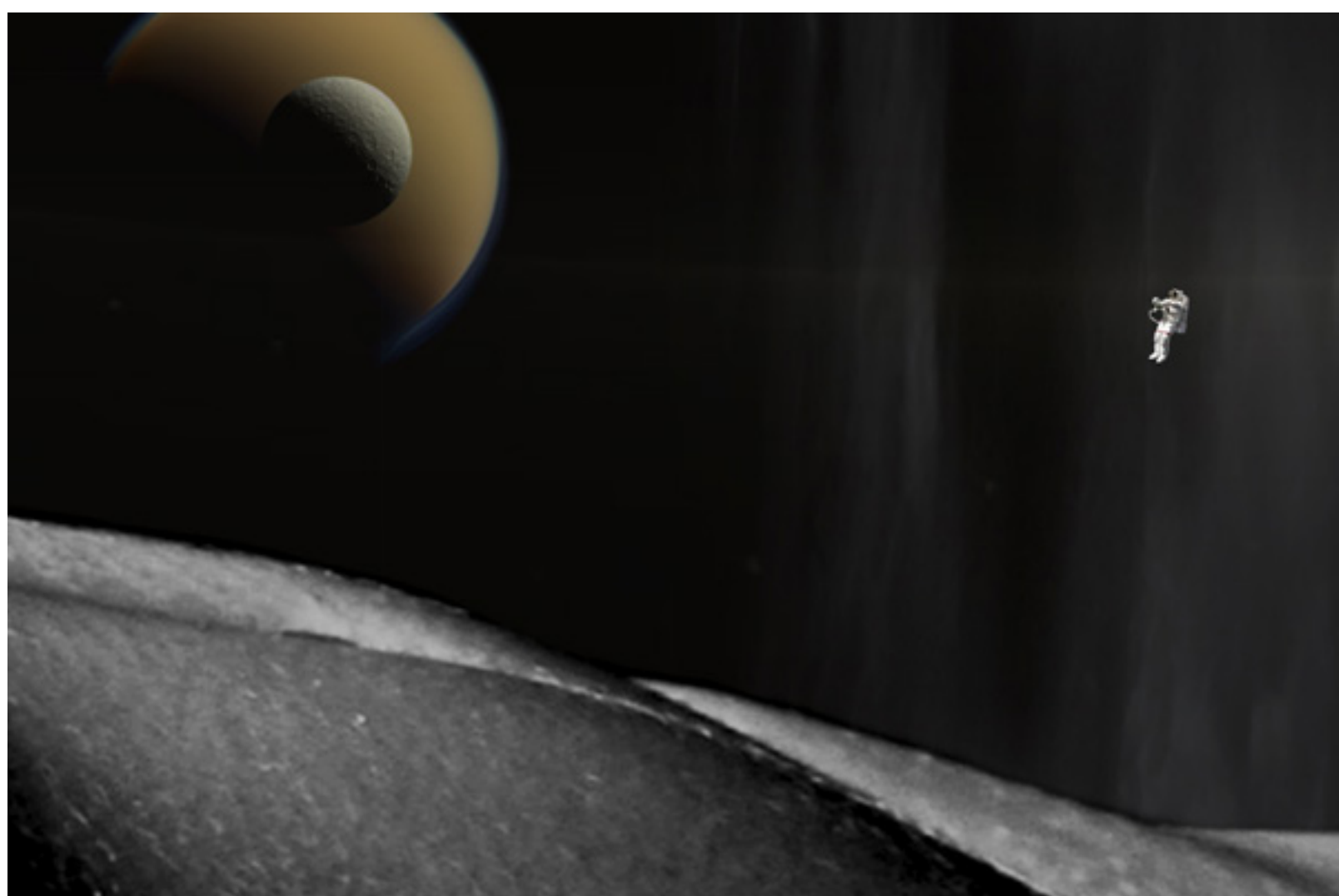
이번 재생수익을 받은 로칸킴 작가는 'VIDO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아트 아카이빙 플랫폼에 만족하고 있다.' '작품 재생 수익 분배에 더불어 미디어 캔버스를 보유한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어 작가들이 많은 곳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점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며 미디어 아티스트에게 VIDO의 필요성을 천연하고, 앞으로 개발되고 확장될 VIDO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1월 재생수익 명세서

작가명	로칸킴	작품명	SPACE ODDITY	매출액	1,200,000원	재생수익	120,000원
작가명	김민준	작품명	디지털 아트	매출액	800,000원	재생수익	80,000원
작가명	이수진	작품명	미디어 아트	매출액	500,000원	재생수익	50,000원
작가명	박지민	작품명	디지털 아트	매출액	300,000원	재생수익	30,000원
작가명	정지현	작품명	미디어 아트	매출액	200,000원	재생수익	20,000원

VIDO 1월 재생수익 명세서



로칸킴, <SPACE ODDITY>, 2022

VIDO안의 작품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영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화 된 회화와 인스톨레이션들도 업로드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vido.gallery를 방문해보세요!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Friend Wilson'



VIDO에서 소개해 드릴 미디어 아티스트는 'Friend Wilson(내 친구 윌슨)'입니다. 주로 3D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만의 분위기로 스토리텔링해 보는 이들이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전달하고자 합니다.

Q. 작가님의 '프랜드 윌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A. 저는 반려 식물 '윌슨'을 보내면서 내 친구 윌슨 혹은 프랜드 윌슨이라는 작가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우스징 플랜트를 받았는데 처음 키우게 된 식물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하며 영양제도 처음 구매하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때 식물의 모습이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나오는 '윌슨'이라는 배구공처럼 동그란 모양이었고 자연스럽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윌슨'은 금방 떠나게 됐고 저는 그때 저의 친구였던 '윌슨'을 기리는 의미로 작가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Friend Wilson, <Visitor>, 2021, 단채널



Friend Wilson, <Event Horizon>, 2021, 단채널

Q.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흐리고 어두운 분위기가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특유의 분위기를 조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우주 영화에서 본 SF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소재로 삼게 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A. 네.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문과 학생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으실 텐데 그게 저였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오는 신비함과 몽환적인 분위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SF 소재들을 선호하게 됐어요. SF 중에서도 스타워즈같이 화려한 SF가 아니라 일상에 한두 가지가 근미래적 모습으로 등장시켜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레트로한 느낌을 선호해서 흐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를 위해 탁하고 옛날 필름 사진처럼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riend Wilson, <Between>, 2021, 단채널

**Q. 작업하실 때 매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작업 과정 중 세밀하게 작업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저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단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는 이들이 스토리를 읽으며 자신만의 감상과 해석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정한 메시지를 위해 전달하기 위해 정정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감상이 나올 수 있게끔 작업하려고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저는 '빛, 라이팅(Lighting)' 효과를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이나 어떤 재질을 사용할 건지 등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 변화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선 라이팅 효과를 조정해 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Friend Wilson, <Secret Base>, 2021, 단채널

Q. Friend Wilson 작가님이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 A.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아트 시장의 전망에 대해 걱정이 됐었는데요. 사람이기에 특수했던 감정이라는 특성을 기계가 학습하여 창작 활동을 함에 놀랐습니다. 기계가 감정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게 아티스트로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AI의 작품이 등장하면서 많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매체의 도전이나 작품 세계관 등을 열어 주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변화 안에서 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더욱 성장하며 발전될 미디어 아트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riend Wilson(내 친구 윌슨)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vido.gallery에서 만나보세요.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